제3강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1~3교시)

백석 (1912~?)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끝에 헤메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독특한 제목 풀이**
남신의주 유동 마을에 사는 박시봉이란 사람의 방 (주소 형식)

**1. 백석의 개인사**
본명 백기행. 1912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 오산학교와 일본 아오야마(青山) 대학 졸업. 조선일보 사진부장으로 있었던 부친 덕에 그다지 어려움 없이 학업을 연마함. 오산 출신의 김억이나 김소월 같은 시인이 되기를 열망함. 매우 탐미적인 성향을 가졌던 듯. 타고난 방랑벽이 있어 자주 가족을 떠나 홀로 여행을 하거나 직장을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 해방 후 월북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2. 해설 및 감상의 포인트 : 형상화의 문제-비유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 객관적 상관물 … 엘리엇이 실생활에 있어서의 정서와 문학작품에 구현된 정서의 절대적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용한 문구이다.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낼 때 공식이 되는 한 떼의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으로서, 바로 그 정서를 곧장 환기시키도록 제시된 외부의 사물들>이라고 그는 말했다.(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에서)

**3.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타난 시적 기율**
① 삭아 내리는 감정 :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25행)
② 시의 종결처리 : '-다'로 끝나는 행과 '-데'로 끝나는 행의 차이. 시의 전반부는 다소 확정적인 뉘앙스의 '-다'로 종결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후반부는 원망이나 아쉬움 등의 감정이 다소 불확정적인 '-데'로 마무리되고 있는 점 주목.
③ '것'의 미학 : 불완전 명사로서 '것'은 일반 문장에서도 기피하는 표현. 그러나 이 시에서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참고문헌**
이동순 편, 『백석시전집』, 창비, 1987.
고형진, 「백석시 연구」, 고려대대학원, 1983.
최두석, 「백석의 시세계와 창작방법」, 『우리 시대의 문학』 6, 문학과지성사, 1987.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김은자,「백석 시 연구」,『논문집』8, 한림대, 1990.

5. 참고작

## 산숙(山宿)

여인숙(旅人宿)이라도 국수집이다.
모밀가루 포대가 그득하니 쌓인 웃간은 들믄들믄 더웁기도 하다.
나는 낡은 국수분틀과 그즈런히 나가누어서
구석에 데굴데굴하는 목침(木枕)들을 베어 보며
이 산골에 들어와서 이 목침들에 새깜아니 때를 올리고간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 사람들의 얼골과 생업(生業)과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

## 수라(修羅)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언제인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